

<2018년 7월 1일 주일말씀>

삼위일체의 때가 자기 때다

본 문 전도서 3장 1-8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 <위대한 잠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행하면서 받은 말씀이다.
2. <잠언>은 반드시 ‘행한 것’ 위에 온다.
3. <솔로몬>도 잠언을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4. <지혜의 근본자>는 ‘하나님’ 이시다.
5. <지혜>는 ‘하늘’ 에서 오는 것이지, ‘땅’ 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6. <때>를 놓치면, 다른 자에게 ‘주권’ 이 넘어간다.
7. 제때 하면 자기 주권대로 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상대의 주권으로 하게 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비했어도 자기가 ‘때’ 놓치면, 안 된다. <지혜>로 결정하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
9. 운동을 할 때 보면, ‘자기의 기회’ 가 있다. <자기의 기회>를 놓치면, 상대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10. 생활 속에서도 <자기 때>를 놓치면, 상대에게 주권이 넘어가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후회하고, 쳐다보는 나그네 신세가 된다.
11. <제때, 자기 때>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상대에게 주권이 넘어가서 상대의 마음대로 하게 되니, 역시 자기는 그냥 쳐다보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고 후회만 하게 된다.

12. <초>를 다투고 살아야,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다.
13. <자기 때>가 지나가면 큰일 난다. <주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뺏기고 만다.
14. <미리하는 것>이 그리도 크다. 줄다리기를 할 때 보면, 어린이일지라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줄을 잡아당기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어른일지라도 이미 상대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당기면 딸려 간다. 그만큼 미리 하는 것이 크다.
15. 운동할 때도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조금 빨라서 승리하고, 조금 늦어서 실패한다.” 하셨다.
16.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17. <때>는 ‘하나님’ 이다.
18. <때>를 지키면 ‘빛’으로 끝나지만, <때>를 못 지키면 ‘더러운 때’로 끝난다.
19. <부활의 역사>에서 ‘때’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나지를 앓는다. <때>를 지켜야 살아난다.
20. <때>를 놓치면, 순간 뱀한테 물린다. 그러나 순간 발을 빼면 안 물린다. <때>가 그렇게도 무섭다.

21. <때>를 생명시해야 된다.
22. <오늘>도 ‘때’이며, <내일>도 ‘때’이며, <모레>도 ‘때’이다. <때>가 계속 오고 간다.
23. <삼위일체의 때>가 곧 ‘자기 때’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때>가 ‘자기 때’이니, 그때를 같이 지켜라.
25. <때>가 되면, 순간 다른 세계로 뒤집어진다.
26. 안 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때’가 되면, 된다. 고로 <때>를 기다려라.
27. <때>가 오기 전에는 ‘깜깜한 세계’이지만, <때>가 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세계로 뒤집어진다. 때가 그렇게도 무섭다.
28. <때>를 지키면, 안 될 것도 된다.
29. <시대 보낸 자>는 ‘때’를 위해서 나타난다.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때>다. 고로 <때>를 꼭 지켜야 된다.” 하셨다.
30. <시대 보낸 자>는 ‘때’이니, 항상 초를 다투면서 행한다.

31. <안 될 것>도 ‘때’를 지키면, 된다.
32. <때>를 따라 사정없이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33.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뜻’이 있으면 정녕코 행하신다.
34. 항상 성령과 같이 해야 ‘운’이 따르고, ‘복’이 따른다.
35. 항상 성령과 같이 해라. 주와 같이 해라. 그래야 운도 따르고, 복도 따른다.
36. 운(運)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운의 근본자’ 이시기 때문이다.
37.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운’이 따르고, <주>를 믿어야 ‘주의 운’이 따른다.
38. <제때> 하면, 하나님이 각종의 것을 동원해서 깨우쳐 주신다.
39. <때>를 지켜라. 안 지키면, 후회하고 한탄한다.
40. <현실>에서 결정을 잘못하면, ‘과거에 수고한 것’이 깨져 버린다.
41. <현실>에서 결정을 잘못하면, ‘미래에 얻을 것’이 깨져 버린다.

다.

42. <현실>에서 ‘미래’도 보고 ‘과거’도 봐야 된다.

43. 지난날 사연들을 잊지 말아라.

44. <분별>을 잘해야 된다. <분별>은 ‘제때, 제 위치’에서 하면 된다.

45. <제때> 하면,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해 주신다.

46. <분별>과 <판단>은 빨리해야 된다.

47. 하나님이 “해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때를 놓친 자가 된다.

48. <때>를 무섭게 지켜라.

49. <몸 관리, 건강 관리>도 ‘때’ 지나서 하면 안 된다.

50. <돌>도 앞으로 숙어서 중심을 잃었을 때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전에 미리 알고 세워야 된다.

51. 무슨 일이든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52. <제때>를 놓치면 자기 주권을 뺏기게 된다.

53. <자기 때>에는 ‘자기’가 위에 있는데, <때>가 지나가면 ‘상대’가 위에 있게 된다. 고로 상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54. <때>를 놓치면 주권이 넘어간다. -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모두 때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된다.
55.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 그 때에는 무조건 행해야 된다.
56. 지금은 ‘이성의 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 지금은 <다른 때>이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청소를 다 해 주고 가셨기 때문에 또 더럽게 하면 큰일 난다.
57. 완벽하게 해야 된다. 돌도 완벽하게 쌓아 놔야 하듯이, <자기>도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